

#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4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5
III. 경영참고사항 .....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	6
나. 회사의 현황 .....	12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8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18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93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100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02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104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104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 년 2 월 16 일

회 사 명 : 삼화페인트공업(주)  
대 표 이 사 : 오 진 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성곡동)  
(전 화) 031-499-0394  
(홈페이지)<http://www.sp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이 사 (성 명) 허 귀 행  
(전 화) 02-765-3641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0기 정기)

삼가 주주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7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본사 시화공장 강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성곡동))
3. 회의목적사항
  - 가. 보고안건 : ①감사의 감사보고 ②영업보고
  - 나.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제70기(2016.1.1 ~ 2016.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내이사 후보 오진수 (재선임))
    - 제 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 및 게재하였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제18조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해당사항 없음.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배우근 (출석률: 81.3%)	공용표 (출석률: 89.5%)
			찬 반 여 부	
1	2016-01-26	제69기(2015 사업년도)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
		제69기(2015 사업년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
		타법인 지분취득의 건	찬성	-
		201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찬성	-
2	2016-02-04	임원 (이사보 포함)인사에 관한 건	찬성	-
3	2016-02-05	제6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
		감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
		이익잉여금 처분액 결정의 건	찬성	-
4	2016-02-18	제69기(2015 사업년도) (수정)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
5	2016-03-03	제16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의 건	찬성	-
		해외 신규법인 설립의 건	찬성	-
		하나은행 한도대출 약정의 건	찬성	-
6	2016-03-11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임원 연봉 결정의 건	찬성	찬성
7	2016-04-05	하나은행 전자적 외담대 기한연장의 건	찬성	찬성
		하나은행 당좌차월 재약정의 건	찬성	찬성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차입(대환)의 건	찬성	찬성
8	2016-04-21	자기주식 처분의 건	불참	찬성
		지분 취득의 건	불참	찬성
		임원배상책임보험 갱신의 건	불참	찬성
9	2016-05-12	불용재고자산 폐기의 건	찬성	불참
		지배인 해임의 건	찬성	불참
10	2016-07-14	해외 신규법인 설립의 건	찬성	찬성
		자기주식 취득 결의 건	찬성	찬성
		지배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11	2016-08-22	현지투자법인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찬성	찬성
12	2016-10-14	현지투자법인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찬성	찬성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차입(대환)의 건	찬성	찬성
13	2016-11-10	현지투자법인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불참	찬성
		현지투자법인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불참	찬성
		불용재고자산 폐기의 건	불참	찬성

※ 공용표 사외이사는 2016년 3월 11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출석률은

선임 이후 개최된 이사회부터 집계하였습니다.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2명	4,000	86	43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의 총보수 승인금액임.
- ※ 사외이사의 인원수는 12월 말 기준이며 보수총액에는 3월 취임 임원 1인의 보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운송주선 등 용역거래	(주)삼화로지텍 (종속회사)	'16.01.01~'16.12.31	15,785	3.6
지급보증	SAMHWA PAINTS VINA COMPANY LIMITED (종속회사)	'16.12.12~'21.12.12	4,834	1.1

※ 상기 비율은 2016년 매출액 대비 비율임

※ 지급보증의 거래기간은 현지법인의 차입기간이며 본 채무 상환시 까지임

※ 지급보증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액 USD 4,000,000을 결산일 매매기준율  
(1,208.50원/USD)로 환산하여 원화금액을 계산함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당사와 종속회사는 도료 부문, IT 부문, 운송주선 및 금융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료부문은 건축용 도료, 공업용 도료, 기타 도료 등 종합도료 제조사로서 국내 900여개 대리점 유통망과 B2B 영업을 통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료부문 이외로 (주)에스엠투네트웍스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리, 컨설팅 등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삼화로지텍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유씨에이치 파트너스는 투자 및 자문업을, UCH Credit microcredit Company.,LLC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도료>

###### (1) 산업의 특성

도료산업은 화학제품의 원료 기술개발과 응용기술이 집약된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로써 건설, 철강, 금속, 자동차, 조선 등 광범위한 재료의 마감소재로 사용되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산업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용 수요는 물론 최근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개인들의 가정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의 초기에는 대량 생산체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품종 소량체제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이며, 과거 중소기업들이 난립하여 경쟁하던 시기에서 점차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겸비한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료는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마감 상태가 결정되며, 반제품의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도장업자 및 라인성 제조업체의 도장 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상품 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료산업은 원료의 수입 비중이 높고 대부분의 매출은 내수가 많아 유가 및 환율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전방산업인 건설, 자동차, 전자 산업 등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2) 성장성

도료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및 전자 산업 등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SOC사업, 재개발/재정비 사업 확대 등에 민감한 편입니다. 최근 정부의 SOC 예산 감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과잉공급 해소 지연 등으로 공공·민간부분 수주액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성장을 정체와 정부 규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주택시장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불황이 지속된 조선업의 경우 여전히 선박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아 2017년에도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 확대와 도료 아이템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시도되는 다양한 유통채널 개발, 일반 인테리어 소비재로서의 부각 등으로 인해 앞으로 도료 산업의 재도약이 예상됩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도료산업은 건설경기 등의 전방산업의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상관 관계에 접해 있습니다. 특히 건축용 도료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건설경기 부양책 등의 산업경기 동향에 따라 주기적인 형태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매체 및 온라인 등을 이용한 소비자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DIY제품군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도료 시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 (4) 계절성

건축용 도료는 4계절 중 춘추기의 판매량이 매우 높으며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외부 기후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과 장마 기후의 변화로 분기별 편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업용 도료 산업은 계절의 영향을 덜 받는 대신 전방산업의 영향에 따라 매출구조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 (5) 국내외 시장여건

당사를 포함한 종합 도료메이커는 케이씨씨,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벽산페인트 등이 있습니다. 상기 6개사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약 150여개의 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있지만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겸비한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건축용 도료의 시장점유율 1위로 수년간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및 기능성 도료 등 품질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국내 상위 생산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시장여건에 따라 중소기업체들은 신규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 시장 입지를 유지 내지 확보하기 위해 유통망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위업체들과 상생 협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새로운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기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을 통해 해외 수요 변화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 (6)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건축용 도료 산업은 품질(친환경성, 작업성), 가격, A/S, 구매편리성, 인지도 등이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당사는 오랜 기술력과 경험, 그리고 900여개의 대리점 유통망을 통해 이와 같은 모든 점에서 동종사 대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프리미엄 및 DIY 시장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도료 산업 또한 PCM도료, 분체도료, 플라스틱도료, 패키징도료 등 각종 산업 전반에 걸쳐 M/S를 넓혀가고 있으며, PCM도료, 분체도료의 경우 공주공장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휴대폰, 전기, 전자 등 첨단산업에도



다양하게 도료를 공급하고 있는 전문 종합도료업체로서 각종 기술 교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7)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① 대기환경보전법

도료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2015년 1월부터 건축용 및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강교용 도료, 선박용 도료의 함유기준이 새롭게 설정되어 기준에 적합한 제품개발에 많은 연구투자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 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친환경 도료의 가격적 부담이 있으나 소비자의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인식 개선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 친환경 제품이나 아토피 케어 인증 제품의 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③ 화학물질관리법

2015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을 위한 저독성 제품 개발, 생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④ 건축법

관련 법규 중 규정된 높이 및 면적의 산업시설 및 건축물의 철골 부위에 내화도료를 도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플레임체크 시리즈의 판매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유기질 내화도료 판매 1위 업체로서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2,3시간용 건축용 내화도료 및 미 UL LLC인증을 획득한 플랜트용 내화도료를 개발/판매하고 있습니다.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기준)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는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00태의 경고표시 및 MSDS를 작업장의 근로자, 소비자, 운송근로자 및 긴급방재요원에게 전달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 IT >

### (1) 산업의 특성

IT 부문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기획부터 개발 및 구축, 운영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과거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며 S/W와 시스템 등의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 IT서비스 제공 회사를 통한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IT서비스 제공 회사들은 과거 단순한 회계 프로그램의 구축과 S/W의 제공에서 더 나아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컨설팅, BI(Business Intelligence, BI) 구축과 유지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서비스는 소형 설비 및 간단한 S/W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진입장벽이 낮으나 시스템 구축 노하우 및 산업에 대한 지식을 갖춘 기업만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입니다.

## (2) 성장성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에스케이씨앤씨, 삼성SDS, LG CNS 등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그룹의 관계사와 그외 민간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서 벗어나 시스템 통합 E-Business 등으로 IT서비스 분야의 사업 및 수요영역이 점차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모바일을 통한 업무 수행 등의 스마트 워크(Smart Work)에 대한 기업들의 도입이 점차 증가하는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국내 IT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IT서비스 시장은 기업들이 경기 변동에 따라 설비투자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 있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IT투자 계획과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4) 국내외 시장여건

과거 PC와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증가하였던 IT서비스 시장은 기업들이 일정 수준의 정보화 능력을 갖추에 따라 대규모 신규 시스템의 구축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유지 및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IT서비스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또한 그룹에 속한 IT서비스 기업들이 그룹 본부 및 계열회사에 대한 수주로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고, 최근 모바일, 클라우드 등 신규 IT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증대에 따라 IT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IT서비스는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력과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관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IT서비스 부문은 오랜기간 전산화 개발 및 전산통합 유지보수와 IT자산관리, 시스템복구, ERP등의 솔루션 공급 등을 진행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다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IT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 <운송주선>

### (1) 산업의 특성

물류산업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자재, 제품, 상품의 운송과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자재와 중간제품 및 완제품의 물류흐름을 효율적으로 계획, 실행, 관리하는 복합서비스 사업으로 타 산업간 연계성이 매우 큰 특성을 보이는 산업입니다. 성장의 기본요건인 도로, 항만, 철도, 항공 등 국가의 사회간접자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물동량이 거시적으로는 국내외 경기와 미시적으로는 계절적, 특정사안별 등으로 변동되고 있어 경기침체 및 호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2) 성장성

90년대 이후, IT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급속한 정보화사회 진화와 글로벌화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물류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높아지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물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경제규모와 교역량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여 정책적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속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가능하다면 산업 전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물류 실적은 물동량에 따라 변동하므로, 경기의 호황 또는 불황에 따라 물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각종 경제상황(경제성장률, 수출입물동량,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기변동에 동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운송업의 특성상 세계 유가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계절적으로 특별한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 (4)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 운송업계는 도로교통의 정체, 효율이 떨어지는 비영업용화물자동차의 압도적 수송분담구조, 낙후된 화물터미널 시설 및 화물유통정보체제의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운송효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운송업체는 일부 주요 운송업체를 제외하고는 개별차주 형태의 영세업체로서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전반의 물류서비스 경쟁력과 수익성이 선진국 대비 열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과거에는 원가절감에 의한 비용경쟁이 주를 이루었으나, 근래에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하에서의 고객의 요구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경쟁력 외에 물류사업 노하우, 네트워크연계를 통한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물류보안 및 안전시스템 강화, IT활용을 통한 공급망의 가시성 및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사의 운송주선 부문은 삼화페인트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축적된 노하우와 다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금융>

### (1) 산업의 특성

UCH CREDIT(이하 'UCHC')은 키르기스스탄 관련법률에 의거 The National Bank of Kyrgyz Republic(이하 'NBKR')에 등록후 영업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Commercial Bank를 제외한 Microfinance Organization(이하 'MFO')는 규모 및 영업형태에 따라, Microfinance company(이하 'MFC'), Microcredit company(이하 'MCC'), Microcredit agency(이하 'MCA')로 구분됩니다. UCHC는 MCC에 속하며, 주요 대출대상은 개인 및 기업입니다. MFC는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수신기능이 있으며, MCC 및 MCA는 수신기능이 없고 동일인 대출한도제한에 MFC와 차이가 있습니다.

### (2) 성장성

2016년 3월말 MFO는 약 168개(MFC 6개, MCC 106개, MCA 56개)가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으며, NBKR로부터 수시/정기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주요 MFC/MCC 약 3개 회사가 은행으로 전환되는 등 일정규모 이상의 MFC/MCC는 은행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와 특히 2014년말부터 시작된 유가하락 등으로 자원부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의 극심한 경제침체는 이들 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가 주축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인구 약 1억 8천만명, GDP 약 2조 1천억 달러, 무역액 약 1조 달러의 거대 경제연합체로 키르기스스탄은 2015년 8월에 가입을 하였고 여러 가지 대내외시스템을 EAEU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중반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AEU 가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시점까지는 무역산업에 필요한 많은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가공후 인근 국가 등에 수출하였던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수입원자재의 관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향후로는 유가인상 등으로 러시아/카자흐스탄 등의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스크 관리부분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시장여건

2016년 6월말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산업별 분포는 농축업 10%, 가공업 13%, 건설업 7%, 무역관련업 17%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을 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 등에서 연관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경제변동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또한, 전체 산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농축업도 기후 및 계절적인 변동에 따라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종사자들의 수입/지출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동절기에 특히 리스크관리가 증대됩니다.

EAEU에 따라 농축생산물의 수출을 위한 검사시스템 정착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고 있어 농축산업의 경제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UCHC는 수신기능이 없고, 직·간접적으로 규정된 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업계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운영자금규모/대출취급비용/대고객 서비스의 질 등입니다. 금융업은 '규모의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운영자금규모 확대는 필수적이며, UCHC도 이 부분을 위해 국내외에서 양질의 투자자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 (가) 영업개황

##### <도료>

2016년 상반기는 조선 및 해운업계에 닥친 불황과 영국의 EU탈퇴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하반기에는 국내의 정치적 불안과 함께 저성장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도료 시장 역시 매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사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높은 브랜드 인지도, 제품 기술력, 전국적인 대리점 유통망을 바탕으로 기존 시장점유율을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시장 개척과 아이템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베트남과 인도 등에 신규 투자가 단행됐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를 통한 수익 증가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리점 유통망의 B2C역량을 강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셀프페인트 브랜드를 확대하는 등 품목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B2C유통채널 전문화를 위해 설립된 홈앤톤즈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위축으로 매출이 다소 정체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도료 비중확대를 통해 매출규모와 영업이익률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도료브랜드1위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이러한 노력이 뚜렷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IT>

IT서비스 시장은 기업들이 일정 수준의 정보화 능력을 갖추에 따라 대규모 신규 시스템의 구축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유지 및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IT서비스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또한 그룹에 속한 IT서비스 기업들이 그룹 본부 및 계열회사에 대한 수주로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고, 최근 모바일, 클라우드 등 신규 IT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증대에 따라 IT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운송주선>

국내 운송업계는 도로교통의 정체, 효율이 떨어지는 비영업용화물자동차의 압도적 수송분담구조, 낙후된 화물터미널 시설 및 화물유통정보체제의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운송효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운송업체는 일부 주요 운송업체를 제외하고는 개별차주 형태의 영세업체로서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전반의 물류서비스 경쟁력과 수익성이 선진국 대비 열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금융>

2016년 키르기스스탄 Micro Finance Organization(이하 'MFO')에는 경쟁력/차별화의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전체 금융시장 Market share에서 MFO가 차지하는 수준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한 이유는 최근 수년간 계속 되고 있는 저유가현상으로 키르기스스탄 경제와 가장 밀접한 러시아/카자흐스탄 경제난입니다. 다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등장으로 러시아의 경제제재 등이 다소 해결과 글로벌 저유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 조성되어 과거 2-3년간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됩니다.

이러한 러시아/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UCH CREDIT은 2016년에는 대출자산의 건전성 개선에 역점(2015년말 대비 2016년말 연체대출비율 약 7% 감소)을 두었으며, 특히 대출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담보부 97%, 보증부 3%)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대출자산(대출성자산 포함)은 2015년말 대비 2016년말에는 약 5% 증가하였으나, ROE는 2015년말 14%, 2016년말 7%로 저조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환율문제로 인한 한국 송금비용의 과다계상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건전성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수익성개선 및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우기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Investors들과의 꾸준한 협의를 통한 투자확대추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4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업부문	대상회사명	주요 제품의 명칭 등
도료	삼화페인트공업(주) 흥앤톤즈(주) 위해삼화도료유한공사 삼화도료(장가항)유한공사 SAMHWA PAINTS VINA COMPANY LIMITED SAMHWA PAINTS(M) SDN.BHD. SAMHWA PAINTS INDIA PRIVATE LIMITED SAMHWA-VH Company Limited	건축용 도료, 공업용도료 등
IT	(주)에스엠투네트웍스	S/W 및 시스템 개발 및 판매
운송주선	(주)삼화로지텍	화물운송 주선
금융	(주)유씨에이치 파트너스 UCH Credit microcredit Company.,LLC	투자자문, 소매금융

① 당기 및 전기 중 연결법인이 영위하는 영업에 따른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구분	도료	용역		금융	연결조정	계
		IT	운송주선			
총매출액	492,918,358,548	7,541,523,525	15,944,490,614	801,054,215	(35,013,897,091)	482,191,529,811
내부매출액	(13,593,154,577)	(5,217,882,902)	(15,908,563,337)	(294,296,275)	35,013,897,091	-
순매출액	479,325,203,971	2,323,640,623	35,927,277	506,757,940	-	482,191,529,811
영업이익	15,112,903,914	1,092,345,821	294,066,101	198,943,912	2,176,918,577	18,875,178,325

(전기)

(단위: 원)

구분	도료	용역		연결조정	계
		IT	운송주선		
총매출액	535,555,367,370	8,376,011,271	14,540,488,068	(51,283,977,144)	507,187,889,565
내부매출액	(31,137,275,798)	(5,638,232,920)	(14,508,468,426)	51,283,977,144	-
순매출액	504,418,091,572	2,737,778,351	32,019,642	-	507,187,889,565
영업이익	29,706,799,991	762,677,978	402,348,651	819,339,500	31,691,166,120

②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영업부문별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구분	도료	용역		금융	연결조정	계
		IT	운송주선			
자산총계	536,878,603,726	7,536,608,939	2,859,950,659	5,082,064,867	(26,049,005,313)	526,308,222,878
부채총계	231,588,901,308	4,896,089,415	1,367,806,282	544,256,793	(7,810,558,208)	230,586,495,590
차입금 및 사채	120,268,399,308	3,200,000,000	-	530,000,000	(604,250,000)	123,394,149,308

(전기)

(단위: 원)

구분	도료	용역		연결조정	계
		IT	운송주선		
자산총계	524,315,792,062	6,781,876,071	2,284,521,658	(21,449,018,268)	511,933,171,523
부채총계	226,483,222,891	5,016,363,852	1,194,738,406	(8,580,642,439)	224,113,682,710
차입금 및 사채	112,105,147,596	3,200,000,000	-	-	115,305,147,596

(2) 시장점유율

\* 도료사별 국내 시장점유율 변화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삼화페인트>>	16%	16%	15%
A사	37%	37%	37%
B사	15%	15%	14%
C사	9%	9%	10%
기타	23%	23%	24%

※ 국내도료시장 전체 매출규모와 도료사들의 매출규모를 추정하여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였으며, 상기 표상의 수치들은 추정치이므로 실제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T, 운송주선, 금융 부문은 아직 시장 규모대비 점유율이 미미하여 시장 점유율 산정은 무의미하므로 생략합니다.



### (3) 시장의 특성

#### <도료>

도료산업은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로 전방산업인 건설, 플랜트, 자동차, 선박, 전기/전자 등의 마감재로서 최종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화학산업입니다. 원재료는 안료, 용제, 첨가제, 수지 등이 있으며 수지류, 용제류와 안료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환율 변동과 유가 변동에 민감합니다. 용도별 시장은 건축용, 공업용, 선박 및 중방식용, 자동차용, 목공용, 특수용 도료로 분류되며, 교량 및 발전소의 건설, 석유화학 및 에너지 관련 플랜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방식용 등의 산업용 도료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법과 건축법의 강화로 방염도료와 내화도료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웰빙 바람과 소비자의 인식변화로 친환경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IT>

IT 부문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기획부터 개발 및 구축, 운영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과거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며 S/W와 시스템 등의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 IT서비스 제공 회사를 통한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IT서비스 제공 회사들은 과거 단순한 회계 프로그램의 구축과 S/W의 제공에서 더 나아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컨설팅, BI(Business Intelligence, BI) 구축과 유지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서비스는 소형 설비 및 간단한 S/W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진입장벽이 낮으나 시스템 구축 노하우 및 산업에 대한 지식을 갖춘 기업만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입니다.

#### <운송주선>

물류산업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자재, 제품, 상품의 운송과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자재와 중간제품 및 완제품의 물류흐름을 효율적으로 계획, 실행, 관리하는 복합서비스 사업으로 타 산업간 연계성이 매우 큰 특성을 보이는 산업입니다. 성장의 기본요건인 도로, 항만, 철도, 항공등 국가의 사회간접자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물동량이 거시적으로는 국내외 경기와 미시적으로는 계절적,특정사안별 등으로 변동되고 있어 경기침체 및 호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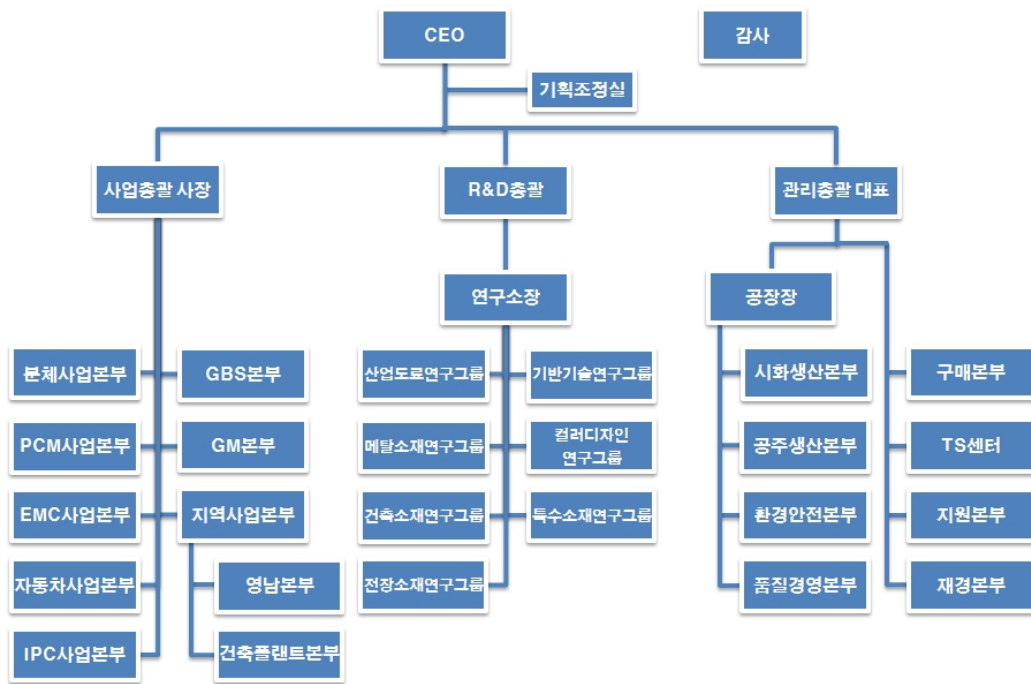
#### <금융>

UCH CREDIT(이하 'UCHC')은 키르기스스탄 관련법률에 의거 The National Bank of Kyrgyz Republic(이하 'NBKR')에 등록후 영업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Commercial Bank를 제외한 Microfinance Organization(이하 'MFO')는 규모 및 영업형태에 따라, Microfinance company(이하 'MFC'), Microcredit company(이하 'MCC'), Microcredit agency(이하 'MCA')로 구분됩니다. UCHC는 MCC에 속하며, 주요 대출대상은 개인 및 기업입니다. MFC는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수신기능이 있으며, MCC 및 MCA는 수신기능이 없고 동일인 대출한도제한에 MFC와 차이가 있습니다.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 (5)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식 및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현금흐름표· 주식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70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69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70(당) 기말		제69(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248,697,189,662		248,595,437,958
현금및현금성자산	26,853,988,854		41,136,210,214	
단기금융상품	3,596,144,531		1,251,378,09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4,266,485,387		117,992,486,808	
매도가능금융자산	180,260,000		-	
재고자산	89,638,329,701		83,703,661,074	
기타유동금융자산	-		1,980,000,000	
기타유동자산	3,401,615,799		2,531,701,763	
금융업채권	760,365,390		-	
비유동자산		277,611,033,216		263,337,733,565
장기금융상품	146,851,394		7,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553,275,096		629,760,196	
지분법적용투자지분	15,169,415,409		13,837,385,542	
유형자산	233,472,814,440		223,792,019,857	
투자부동산	8,762,111,880		8,718,838,053	
영업권	1,220,522,173		164,673,168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6,993,243,499		7,100,119,86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625,703,969		6,853,815,661	
기타비유동자산	2,428,047,172		2,234,121,225	

금융업채권	1,239,048,184		-	
자 산 총 계		526,308,222,878		511,933,171,523
부채				
유동부채		145,977,638,263		146,392,776,42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1,127,455,332		83,325,142,290	
차입금	56,331,239,246		56,042,261,833	
당기법인세부채	3,429,084,443		3,612,726,749	
유동총당부채	929,581,000		948,334,641	
이연수익	145,008,654		110,513,063	
기타유동금융부채	250,000,000		-	
기타유동부채	3,765,269,588		2,353,797,849	
비유동부채		84,608,857,327		77,720,906,285
차입금	67,062,910,062		59,262,885,763	
순확정급여부채	501,340,604		1,487,951,361	
이연법인세부채	16,319,606,661		16,160,069,16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725,000,000		810,000,000	
부 채 총 계		230,586,495,590		224,113,682,710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 되는 자본		295,004,857,536		287,481,366,033
자본금	12,694,337,000		11,334,285,000	
기타불입자본	1,220,554,773		(2,533,642,263)	
기타자본구성요소	552,445,211		938,160,722	
이익잉여금	280,537,520,552		277,742,562,574	
비지배지분		716,869,752		338,122,780
자 본 총 계		295,721,727,288		287,819,488,81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26,308,222,878		511,933,171,523

-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0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  
 업

(단위 : 원)

과 목	제70(당) 기		제69(전) 기	
매출		482,191,529,811		507,187,889,565
매출원가		381,185,385,272		393,268,960,913
매출총이익		101,006,144,539		113,918,928,652
판매비	32,869,016,300		33,257,783,209	
관리비	49,261,949,914		48,969,979,323	
영업이익		18,875,178,325		31,691,166,120
기타이익	4,552,859,583		4,277,276,577	
기타손실	2,221,833,134		3,254,381,589	
금융이익	489,425,566		1,091,532,580	
금융원가	4,639,102,549		4,736,676,435	
지분법투자이익	2,013,025,080		667,860,217	
지분법투자손실	-		137,687,366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처분손실	-		75,905,68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069,552,871		29,523,184,416
법인세비용		5,351,468,533		4,762,871,557
당기순이익		13,718,084,338		24,760,312,859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13,738,199,885		24,827,591,172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20,115,547)		(67,278,313)	
기타포괄손익		(575,435,619)		912,783,32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		(261,023,212)		508,728,734
외화환산외환차이	(261,737,999)		518,510,146	
지분법자본변동	714,787		(9,781,41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14,412,407)		404,054,58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14,412,407)		404,054,587	
당기총포괄이익		13,142,648,719		25,673,096,180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13,038,071,967		25,774,526,711	
비지배지분	104,576,752		(101,430,531)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639		1,151
희석주당순이익		591		1,022

-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제70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

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손익	신주인수권 대가	종속기업지분 의 추가취득으로 발생한 차이	외화환산 외환차이	지분법 자본변동			
2015.01.01	11,200,000,000	3,378,507,192	(2,309,856,890)	4,691,391,473	1,077,382,876	-	399,624,233	(80,250,151)	261,180,449,215	124,835,475	279,662,083,423
배당금의 지급	-	-	-	-	-	-	-	-	(8,669,532,400)	-	(8,669,532,4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	-	-	-	24,827,591,172	(67,278,313)	24,760,312,85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404,054,587	-	404,054,587
외화환산외환차 이	-	-	-	-	-	-	552,662,364	-	-	(34,152,218)	518,510,146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9,781,412)	-	-	(9,781,412)
신주인수권의 행 사	134,285,000	1,268,287,372	-	-	(71,645,960)	-	-	-	-	-	1,330,926,412
자기주식의 취득	-	-	(10,503,043,762)	-	-	-	-	-	-	-	(10,503,043,762)
자기주식의 처분	-	-	28,629,000	101,954,368	-	-	-	-	-	-	130,583,368
종속기업지분의 추가취득	-	-	-	-	-	(195,247,932)	-	-	-	(146,638,518)	(341,886,45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	-	-	75,905,688	-	461,356,354	537,262,042
2015.12.31	11,334,285,000	4,646,794,564	(12,784,271,652)	4,793,345,841	1,005,736,916	(195,247,932)	952,286,597	(14,125,875)	277,742,562,574	338,122,780	287,819,488,813
2016.01.01	11,334,285,000	4,646,794,564	(12,784,271,652)	4,793,345,841	1,005,736,916	(195,247,932)	952,286,597	(14,125,875)	277,742,562,574	338,122,780	287,819,488,813
배당금의 지급	-	-	-	-	-	-	-	-	(10,628,829,500)	-	(10,628,829,5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	-	-	-	13,738,199,885	(20,115,547)	13,718,084,33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314,412,407)	-	(314,412,407)
외화환산외환차 이	-	-	-	-	-	-	(386,430,298)	-	-	124,692,299	(261,737,999)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714,787	-	-	714,787
신주인수권의 행 사	1,360,052,000	12,812,003,443	-	-	(725,617,365)	-	-	-	-	-	13,446,438,078
자기주식의 취득	-	-	(8,174,216,142)	-	-	-	-	-	-	-	(8,174,216,142)
자기주식의 처분	-	-	81,584,800	26,053,129	-	-	-	-	-	-	107,637,929
종속기업지분의 신규취득	-	-	-	-	-	-	-	-	-	590,036,017	590,036,017

종속기업지분의 추가취득	-	-	-	-	-	(265,610,829)	-	-	-	(315,865,797 )	(581,476,626)
2016.12.31	12,694,337,000	17,458,798,007	(20,876,902,994 )	4,819,398,970	280,119,551	(460,858,761)	565,856,299	(13,411,088)	280,537,520.55 2	716,869,752	295,721,727.28 8

- 연결현금흐름표

<연결현금흐름표>

제70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70(당) 기	제69(전) 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153,281,119	29,222,897,456
1. 당기순이익	13,718,084,338	24,760,312,859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32,118,577,672	29,303,804,632
법인세비용	5,351,468,533	4,762,871,557
금융원가(이자비용)	4,511,784,002	4,482,153,564
감가상각비	11,971,260,131	9,647,771,379
무형자산상각비	903,842,202	993,240,798
퇴직급여	2,705,480,639	2,960,152,958
장기종업원급여	303,798,334	181,392,620
대손상각비	2,593,316,091	2,220,159,725
재고자산평가손실	2,588,106,200	2,142,038,976
외화환산손실	55,076,000	356,648,813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1,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91,999,000	6,039,000
유형자산처분손실	36,907,160	116,715,292
무형자산처분손실	4,381,818	3,30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40,000,000	506,952,000
하자보수비	950,637,676	393,735,714
지분법투자손실	-	137,687,366
지분법적용투자지분처분손실	-	75,905,688
잡손실	10,518,886	317,039,182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3,420,118,930)	(1,505,085,671)
금융수익(이자수익)	179,200,623	421,836,894
외화환산이익	456,102,202	290,809,498
대손충당금환입	905,000	602,400
유형자산처분이익	158,756,987	67,247,784
무형자산처분이익	490,530,062	55,037,335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101,000,000	-
이연수익의 상각	292,591	1,155,923
지분법투자이익	2,013,025,080	667,860,217
잡이익	20,306,385	535,620
4. 운전자본 변동	(24,535,194,108)	(11,254,321,252)
매출채권의 증가	(9,492,719,781)	(406,708,257)
대출채권의 증가	(375,418,505)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1,136,491,445	(243,906,502)
재고자산의 증가	(8,507,069,910)	(3,023,980,869)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696,146,700)	769,548,487
기타금융자산의 감소(증가)	(771,819,848)	66,776,080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90,271,478)	84,352,282



매입채무의 감소	(926,159,352)		(5,542,142,822)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1,064,923,510)		127,970,867
이연수익의 증가	34,788,182		9,241,053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4,200,278,608)		(2,775,682,718)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감소	(202,249,000)		(212,268,000)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400,785,192		(341,077,461)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165,000,000		9,500,000
총당부채의 감소	(969,391,317)		(530,073,073)
해외사업환산	124,189,082		754,129,681
5.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7,728,067,853)		(12,081,813,112)
이자수익의 수취	317,266,491		334,784,872
배당금의 수취	681,710,000		471,750,000
이자비용의 지급	(3,346,200,336)		(3,398,008,150)
법인세의 납부	(5,380,844,008)		(9,490,339,834)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480,291,461)	(31,482,016,191)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29,654,975,761)		(35,920,418,811)
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4,773,592,085		4,615,259,53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2,449,900		720,000
유형자산의 취득	23,267,126,854		28,333,139,504
무형자산의 취득	1,581,806,922		1,387,338,470
장기선급비용의 증가	-		1,579,558,570
연결범위증가로 인한 순현금 감소	-		4,402,73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4,174,684,300		4,438,402,620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346,630,781		4,115,398,442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2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1,051,467,043		125,004,178
무형자산의 처분	656,868,244		178,000,000
연결범위증가로 인한 순현금 증가	119,718,232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44,940,215	(1,274,902,39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61,431,952,963)		(23,823,846,257)
단기차입금의 감소	15,226,672,160		2,501,835,056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9,793,120,000		11,617,010,00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16,349,645,420		-
신주인수권의 행사	23,516,930		1,955,800
자기주식의 취득	8,814,676,912		660,191,682
배당금의 지급	10,628,486,215		8,668,931,760
국고보조금의 감소	14,358,700		32,035,509
종속기업투자지분의 매입	581,476,626		341,886,45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62,476,893,178		22,548,943,861
단기차입금의 증가	10,000,000,000		810,27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13,519,786,000		20,200,000,000
사채의 발행	24,870,460,000		-
국고보조금의 증가	501,412,170		498,512,525
신주인수권의 행사	13,469,955,008		879,961,336
자기주식의 처분	115,280,000		160,200,000
IV. 현금의 감소 ( I + II + III )		(14,282,070,127)	(3,534,021,131)

V.기초의 현금		41,136,210,214		44,488,500,63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151,233)		181,730,713
VI.기말의 현금		26,853,988,854		41,136,210,214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70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46년 4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9월 10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경기도 안산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시설인 시화공장을 비롯하여 국내 다수의지점과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주요사업 내용 : 각종 도료의 제조, 판매 및 시공
- 2) 대표이사 : 오진수, 김장연
- 3) 주요 주주 및 지분율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김장연	8,227,422	32.41
김귀연	408,643	1.61
기타주주	16,752,609	65.98
합계	25,388,674	100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식공시 순서 및 지분법적용자산 관련 기타 포괄손익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관계기업 등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에서 분배예정으로 또는 반대로 재분류될 때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하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6년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2016년 12월 31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실체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6년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2016년 12월 31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실체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기준서는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동 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하락하나 세무상 가액이 원가로 유지되는 경우 매각이나 사용과 같은 예상 회수방식과 무관하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는 것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 (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식 2.(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

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8)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화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해당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를 무상 취득하거나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는 회수되는 보상점수를 위해 제공되는 재화의 공정가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매출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는 연결채무상대표에서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 정도의 조사, 총예산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5)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10)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6) 고객충성제도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가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는 보상점수를 부여한 최초 매출거래 중 별도의 식별가능한 부분으로 회계처리 하여, 최초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거래와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지만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를 기업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한 때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고 연결실체는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를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 그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9) 건설계약

연결실체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

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연결실체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0)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 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1)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2)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3)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4)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

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 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 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 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15) 주식기준보상약정

### 1) 지배기업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연결실체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연결실체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로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사업결합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이하 '피취득자 보상')을 연결실체의 주식기준보상(이하 '대체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 보상과 대체보상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합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에 포함되는 대체보상 부분은 피취득자 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에 피취득자 보상의 총 가득기간 또는 원래 가득기간 중 긴 기간에 대한 가득기간 완료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대체보상의 시장기준 측정치가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 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업결합의 결과로 피취득자 보상이 소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결실체가 보상을 대체할 의무가 없더라도 대체하는 경우, 대체보상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시장기준측정치로 측정합니다. 대체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의 전체는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연결실체가 연결실체의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취득일 현재의 시장기준측정치로 측정합니다. 만약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취득일 전에 가득되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취득일까지 가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득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시장기준 측정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총가득기간과 원래 가득기간 중 더 긴 기간에 대한 완료된 가득기간의 비율에 근거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에 배분합니다. 잔액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40
건축물	20
기계장치	10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5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

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채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9) 무형자산

###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0)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2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

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증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증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증당부채로 인식,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구조조정

연결실체가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거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에게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연결실체가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될 때에 구조조정증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지출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만을 구조조정증당부채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3) 제품보증

제품보증증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23)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또는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인 90일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

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실체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24)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3)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발행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신주인수권대가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
- 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5)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하자보증충당부채

연결실체는 제품의 보증수리 등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당부채의 계산은 현재와 미래의 보증의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추정하여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의 추정이 필요합니다.

(5)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정의 불확실성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연결실체에는 투자, 인건비증가 및 배당액 등의 수준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예상되는 투자, 인건비증가 및 배당액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법인세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한 이러한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 상세한 주식사항은 2월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주식 등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70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69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70(당) 기말		제69(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198,621,889,439		202,482,984,199
현금및현금성자산	10,907,002,055		27,011,264,419	
단기금융상품	437,718,420		188,378,09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0,784,298,327		101,172,976,694	
매도가능금융자산	180,260,000		-	
재고자산	75,582,747,388		71,389,214,947	
기타유동금융자산	-		1,980,000,000	
기타유동자산	729,863,249		741,150,040	
비유동자산		273,848,310,478		256,330,572,693
장기금융상품	6,500,000		7,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553,275,096		629,760,196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29,698,555,824		23,534,598,998	
유형자산	219,536,615,560		209,690,308,902	
투자부동산	8,762,111,880		8,718,838,053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6,916,564,931		6,861,250,81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8,171,612,727		6,870,415,727	
기타비유동자산	203,074,460		18,400,000	
자 산 총 계		472,470,199,917		458,813,556,892
부채				
유동부채		132,865,163,178		134,865,313,99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5,115,114,176		78,482,854,280	
차입금	52,145,884,626		51,553,969,383	
당기법인세부채	1,294,593,802		1,929,589,405	
유동충당부채	929,581,000		948,334,641	
이연수익	145,008,654		110,513,063	
기타유동금융부채	301,561,171		18,035,171	
기타유동부채	2,933,419,749		1,822,018,054	
비유동부채		77,767,610,622		74,405,860,924
차입금	59,134,630,062		54,979,585,763	
순확정급여부채	501,340,604		1,487,173,409	
이연법인세부채	17,426,639,956		17,149,101,75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705,000,000		790,000,000	
부 채 총 계		210,632,773,800		209,271,174,921
자본				

자본금	12,694,337,000		11,334,285,000	
기타불입자본	1,681,413,534		(2,338,394,331)	
이익잉여금	247,461,675,583		240,546,491,302	
자 본 총 계		261,837,426,117		249,542,381,97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72,470,199,917		458,813,556,892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70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70(당) 기		제69(전) 기	
매출		442,507,882,262		453,640,041,159
매출원가		357,184,818,204		367,628,851,452
매출총이익		85,323,064,058		86,011,189,707
판매비	28,135,350,111		29,663,432,925	
관리비	40,663,902,763		40,417,637,004	
영업이익		16,523,811,184		15,930,119,778
기타이익	3,920,114,988		4,723,400,383	
기타손실	1,308,310,931		1,302,054,092	
금융이익	7,384,053,640		9,920,217,336	
금융원가	4,323,802,006		4,351,930,60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손상차손	1,100,000,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095,866,875		24,919,752,798
법인세비용		3,237,440,687		3,182,818,486
당기순이익		17,858,426,188		21,736,934,312
기타포괄손익		(314,412,407)		404,054,58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14,412,407)		404,054,58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14,412,407)		404,054,587	
총포괄이익		17,544,013,781		22,140,988,899
주당이익(단위: 원)				
기본주당순이익		830		1,008
희석주당순이익		768		894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70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손익	신주인수권대가		
2015.01.01	11,200,000,000	3,378,507,192	(2,309,856,890)	4,691,391,473	1,077,382,876	227,075,034,803	245,112,459,454
배당금의 지급	-	-	-	-	-	(8,669,532,400)	(8,669,532,4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	21,736,934,312	21,736,934,31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404,054,587	404,054,587
신주인수권의 행사	134,285,000	1,268,287,372	-	-	(71,645,960)	-	1,330,926,412
자기주식의 취득	-	-	(10,503,043,762)	-	-	-	(10,503,043,762)
자기주식의 처분	-	-	28,629,000	101,954,368	-	-	130,583,368
2015.12.31	11,334,285,000	4,646,794,564	(12,784,271,652)	4,793,345,841	1,005,736,916	240,546,491,302	249,542,381,971
2016.01.01	11,334,285,000	4,646,794,564	(12,784,271,652)	4,793,345,841	1,005,736,916	240,546,491,302	249,542,381,971
배당금의 지급	-	-	-	-	-	(10,628,829,500)	(10,628,829,5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	17,858,426,188	17,858,426,18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314,412,407)	(314,412,407)
신주인수권의 행사	1,360,052,000	12,812,003,443	-	-	(725,617,365)	-	13,446,438,078
자기주식의 취득	-	-	(8,174,216,142)	-	-	-	(8,174,216,142)
자기주식의 처분	-	-	81,584,800	26,053,129	-	-	107,637,929
2016.12.31	12,694,337,000	17,458,798,007	(20,876,902,994)	4,819,398,970	280,119,551	247,461,675,583	261,837,426,117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70(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7년 3월 14일	처분확정일	2016년 3월 11일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제 70(당) 기		제 69(전)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200,937,652,057		194,089,610,276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3,393,638,276		171,948,621,37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314,412,407)		404,054,587	
당기순이익	17,858,426,188		21,736,934,312	
이익잉여금처분액		7,651,268,200		10,695,972,000
이익준비금	680,026,000		67,142,500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300원( 60%) 전기 500원(100%)	6,971,242,200		10,628,829,5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93,286,383,857		183,393,638,276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70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70(당) 기		제69(전) 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315,656,901		30,411,485,837
1. 당기순이익	17,858,426,188		21,736,934,312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26,523,741,804		23,975,824,152	
법인세비용	3,237,440,687		3,182,818,486	
금융원가(이자비용)	4,204,986,492		4,123,049,803	
감가상각비	10,474,779,551		8,123,802,127	
무형자산상각비	957,312,846		1,025,007,664	
장기종업원급여	303,798,334		181,392,620	
퇴직급여	2,426,772,752		2,717,756,646	
대손상각비	361,584,290		1,319,826,926	
재고자산평가손실	2,350,891,518		2,081,717,593	
외화환산손실	826,912		223,710,281	

유형자산처분손실	22,710,746		116,715,292	
무형자산처분손실	-		3,30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40,000,000		476,952,000	
하자보수비	950,637,676		393,735,714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1,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91,999,000		6,039,000	
종속기업투자지분손상차손	1,100,000,000		-	
3.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8,361,887,603)		(9,838,707,097)	
금융수익(이자수익)	90,592,668		295,389,367	
외화환산이익	421,418,284		105,928,887	
대손상각비환입	956,000		643,000	
배당금수익	7,097,460,000		9,325,95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56,336,998		54,066,965	
무형자산처분이익	490,530,062		55,037,335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101,000,000		-	
이연수익의 상각	292,591		1,155,923	
잡이익	3,301,000		535,620	
4.운전자본 변동	(24,961,616,841)		(8,006,152,958)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9,812,622,738)		3,171,322,029	
기타채권의 감소	141,121,748		63,699,973	
재고자산의 증가	(6,544,423,959)		(3,671,850,923)	
기타유동자산의 감소	44,812,791		863,794,186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84,674,460)		2,300,00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1,268,647,000)		(162,665,000)	
매입채무의 감소	(2,768,042,171)		(5,611,702,778)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780,611,759)		751,160,060	
이연수익의 증가	34,788,182		9,241,053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165,000,000		9,500,000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3,920,792,769)		(2,512,980,358)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104,115,611		(175,630,127)	
총당부채의 감소	(969,391,317)		(530,073,073)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감소	(202,249,000)		(212,268,000)	
5.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1,256,993,353		2,543,587,428	
이자수익의 수취	213,128,258		214,057,245	
배당금의 수취	7,097,460,000		9,325,950,000	
이자비용의 지급	(2,543,280,219)		(3,019,691,334)	
법인세의 납부	(3,510,314,686)		(3,976,728,48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240,122,115)		(30,272,276,965)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31,821,033,197)		(32,619,375,474)	
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336,471,102		1,497,259,53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2,449,900		720,000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의 취득	7,263,956,826	투자	1,695,722,035	
유형자산의 취득	21,430,573,023		27,880,944,854	
무형자산의 취득	1,757,582,346		1,544,729,053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4,580,911,082		2,347,098,509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087,630,781		2,051,398,442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980,000,000		2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898,230,239		97,700,067	
무형자산의 처분	615,050,062		178,000,000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86,496,999)		1,028,639,110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58,943,604,177)		(20,710,034,751)	
단기차입금의 감소	13,516,000,000		-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9,596,920,000		11,346,920,00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16,349,645,420		-	
자기주식의 취득	8,814,676,912		660,191,682	
신주인수권의 행사	23,516,930		1,955,800	
배당금의 지급	10,628,486,215		8,668,931,760	
국고보조금의 환급	14,358,700		32,035,509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57,757,107,178		21,738,673,861	
단기차입금의 증가	10,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증가	8,800,000,000		20,200,000,000	
사채의 발행	24,870,460,000		-	
국고보조금의 증가	501,412,170		498,512,525	
신주인수권의 행사	13,469,955,008		879,961,336	
자기주식의 처분	115,280,000		160,200,000	
IV.현금의 증가(감소) ( I + II + III)		(16,110,962,213)		1,167,847,982
V.기초의 현금		27,011,264,419		25,844,554,839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6,699,849		(1,138,402)
VI.기말의 현금		10,907,002,055		27,011,264,419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 1. 당사의 개요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46년 4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9월 10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경기도 안산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시설인 시화공장을 비롯하여 국내 다수의 지점과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주요사업 내용 : 각종 도료의 제조, 판매 및 시공
- (2) 대표이사 : 오진수, 김장연
- (3) 주요 주주 및 지분율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김장연	8,227,422	32.41
김귀연	408,643	1.61
기타주주	16,752,609	65.98
합계	25,388,674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에 따른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식공시 순서 및 지분법적용자산 관련 기타 포괄손익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개정)

동 개정사항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에 따른 방법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관계기업 등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에서 분배예정으로 또는 반대로 재분류될 때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하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6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2016년 12월 31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6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2016년 12월 31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기준서는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동 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하락하나 세무상 가액이 원가로 유지되는 경우 매각이나 사용과 같은 예상 회수방식과 무관하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는 것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5)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6)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는 보상점수를 부여한 최초 매출거래 중 별도의 식별가능한 부분으로 회계처리 하여, 최초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거래와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지만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를 기업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한 때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고 당사는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를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 그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 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5) 외화환산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는 대한민국의 원화(KRW)입니다.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외화자산·부채의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외환손익은 관련 외환손익이 발생하게 된 거래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 또는 기타수익·비용으로 분류됩니다.

## (6)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7)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8)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 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 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 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40
구축물	20
기계장치	10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5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2) 무형자산

###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3) 유·무형자산의 손상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총당부채로 인식,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구조조정

당사가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거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에게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당사가 구조조정을 이행할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될 때에 구조조정총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지출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기업의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만을 구조조정총당부채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3) 제품보증

제품보증총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6)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17)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3)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신주인수권대가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8)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보증충당부채

당사는 제품의 보증수리 등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당부채의 계산은 현재와 미래의 보증의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 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추정하여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의 추정이 필요합니다.

(5)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정의 불확실성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사는 투자, 인건비증가 및 배당액 등의 수준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예상되는 투자, 인건비증가 및 배당액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당사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법인세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한 이러한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2월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주식 등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4 조 (광고 방법) 1.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pi.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4 조 (광고 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pi.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정관 조문형식 통일
제 5 조 (발행 예정주식의 총수) 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8,000,000주로 한다.	제 5 조 (발행 예정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8,000,000주로 한다.	정관 조문형식 통일
제 6 조 (1주의 금액) 1.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정관 조문형식 통일
제 7 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1. 당 회사는 설립시에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정관 조문형식 통일
제 8 조 (주식의 종류) 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017.03.14 신설)	제 8 조 (주식의 종류) 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의결권배제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당 회사가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에 따라 발행하는 종류주식 중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따라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로 한다.	상법 제344조 개정 사항 반영
(2017.03.14 신설)		

<p>제 8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1. 당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23,000,000주로 한다.</p> <p>2. 의결권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9%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p> <p>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p> <p>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인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p> <p>5.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p> <p>6.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p>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 최장 10년이내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8 조의 2 (이익배당우선주식)</p> <p>1.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p> <p>2.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배당을 한다.</p> <p>3.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p>4. 당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p> <p>(2017년 3월 14일 삭제)</p> <p>(2017년 3월 14일 삭제)</p> <p>(2017년 3월 14일 삭제)</p>	<p>상법 제344조의2 개정 사항 반영</p>
<p>(2017.03.14 신설)</p>	<p>제 8 조의 3 (의결권배제주식)</p> <p>1.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8조의2, 제8조의4 및 제8조의5에 따른 주식을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2.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p>	<p>상법 제344조의3 개정 사항 반영</p>

<p>(2017.03.14 신설)</p>	<p>제 8 조의 4 (전환주식)</p> <p>1.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p> <p>3.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당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4.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시가(상장된 경우 거래소에서 주가)가 전환전 주식의 시가를 1년 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p> <p>2) 전환전 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1년간 [10]% 미만인 경우</p> <p>3) 당 회사의 재무적 상황 및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p> <p>5. 전환주식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의거 주주가 당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으로 한다.</p> <p>7.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일한 수로 하되, 이사회는 주주권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당 회사의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발행 시에 전환가액 또는 전환비율의 조정 조항을 둘 수 있다.</p> <p>8.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p> <p>9.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p>	<p>상법 제346조 개정 사항 반영</p>
------------------------	---	--------------------------



<p><u>제 8 조의 3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u></p> <p>1. 당 회사는 제5조에 따라, 발행한 우선주식수와의 합계가 제 8조의 2 제1항에 정한 범위내인 한도에서 회사의 이익(이익준비금,기타 법정준비금을 제외한 제반준비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함.이하 본 조에서 같음)으로 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 할 수 있다.</p> <p>2. 상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p> <p>3.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9%이상으로 하고,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p> <p>4. 상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우선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한다.</p> <p>5. 상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한다.</p> <p>6. 상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7. 상환주식은 회사가 유상증자시 당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며,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시에도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 배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p> <p>8. 당 회사는 회사의 이익으로써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시에 또는 이익의 한도에서 분할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환가액으로 하되 발행가액이 외화로 납입된 경우 회사는 원화 또는 해당 외화중에서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고 외화로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가액에 따라서 본 조에 의하여 발행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상환주식에 대하여 직전사업년도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에 그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산한 금액을 상환가액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상환시 원/해당외화환율</p>	<p><u>제 8 조의 5 (상환주식)</u></p> <p>1.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연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p> <p>3.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4. 당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p> <p>5. 당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6. 주주의 상환청구로 상환하는 경우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정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p> <p>7. 당 회사는 제8조의4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사이에 우선순위를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p> <p>8. 당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p>	<p>조항변경, 상법 제345조 개정 사항 반영</p>
--	---	------------------------------------

<p>1주당 상환가액 = ----- 발행시점 원/해당외화환율</p> <p>9. 상환주식이 상환기간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한다.</p> <p>10. 상환의 방법은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한 후 상환할 의사 및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를 하여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주식을 강제상환한다.</p>	<p>(2017년 3월 14일 삭제)</p> <p>(2017년 3월 14일 삭제)</p>	
<p>제 9 조 (주권의 종류)</p> <p>1.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p>	<p>제 9 조 (주권의 종류)</p> <p>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p>	<p>정관 조문형식 통일</p>
<p>제 10 조 (신주인수권)</p> <p>1. (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동일)</p> <p>1) ~ 3) (현행과 동일)</p> <p>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u>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p> <p>5) (현행과 동일)</p> <p>6) (2009.03.10 삭제)</p> <p>3~5. (현행과 동일)</p>	<p>제 10 조 (신주인수권)</p> <p>1. (좌동)</p> <p>2. (좌동)</p> <p>1) ~ 3) (좌동)</p> <p>4)----- ----- ----- 신주를 발행하거나 당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 (좌동)</p> <p>6) (좌동)</p> <p>3~5. (좌동)</p>	<p>발행목적 및 대상 명확화</p>
<p>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p> <p>1~7. (현행과 동일)</p> <p>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p> <p>9. (현행과 동일)</p>	<p>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p> <p>1~7. (좌동)</p> <p>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p> <p>9. (좌동)</p>	<p>정관 조문 정비</p>
<p>제 10 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p> <p>1.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 10 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p> <p>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정관 조문형식 통일</p>

<p>(2017.03.14 신설)</p>	<p><u>제 10 조의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u></p> <p>1.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p> <p>2.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p> <p>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p> <p>2) 당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p> <p>3) 기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4.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조항 신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p>
<p>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p> <p>1.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2) (2009.03.10 삭제)</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u>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4) (현행과 동일)</p> <p>5) (2009.03.10 삭제)</p> <p>2. (현행과 동일)</p> <p>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u>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u></p> <p>4~5. (현행과 동일)</p> <p>6. (2009.03.10 삭제)</p>	<p><u>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u></p> <p>1. (좌동)</p> <p>1) (좌동)</p> <p>2) (좌동)</p> <p>3)-----</p> <p>----- <u>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당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4) (좌동)</p> <p>5) (좌동)</p> <p>2. (좌동)</p> <p>3.-----</p> <p>----- <u>종류주식-----,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u></p> <p>4~5. (좌동)</p> <p>6. (좌동)</p>	<p>발행목적 및 대상 명확화</p> <p>제8조, 제8조의4 개정 사항 반영</p>

<p>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1.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2) (2009.03.10 삭제)</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u>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4) (현행과 동일)</p> <p>5) (2009.03.10 삭제)</p> <p>2. (현행과 동일)</p> <p>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u>우선주식</u>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4~5. (현행과 동일)</p> <p>6. (2009.03.10 삭제)</p>	<p>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1. (좌동)</p> <p>1) (좌동)</p> <p>2) (좌동)</p> <p>3)-----</p> <p>-----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당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4) (좌동)</p> <p>5) (좌동)</p> <p>2. (좌동)</p> <p>3.-----</p> <p>----- 종류주식-----,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4~5. (좌동)</p> <p>6. (좌동)</p>	<p>발행목적 및 대상 명확화</p> <p>제8조, 제10조 개정 사항 반영</p>
<p>(2017.03.14 신설)</p>	<p>제 15 조의 2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p> <p>1.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2.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 배당금 총액의 100분의 20의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p> <p>3.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및 조건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p>	<p>자금조달 방법 다양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p>
<p>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1. 제 11조, 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정관 조문형식 통일</p>
<p>제 20 조 (소집지)</p> <p>1.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제 20 조 (소집지)</p> <p>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정관 조문형식 통일</p>
<p>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p> <p>1.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p>	<p>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p> <p>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p>	<p>정관 조문형식 통일</p>
<p>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p> <p>1.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p>	<p>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p> <p>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p>	<p>정관 조문형식 통일</p>
<p>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p> <p>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p> <p>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정관 조문형식 통일</p>
<p>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p> <p>1.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p>	<p>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p> <p>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p>	<p>정관 조문형식 통일</p>

제 29 조 (이사의 수) 1.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u>10명 이내</u> 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2014.03.12 삭제)	제 29 조 (이사의 수) 1.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u>6명 이하</u> 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좌동)	회사 상황을 반영하여 최대 이사의 수 조정
제 30 조의 2 (집중투표제의 배제) 1. 당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 2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의 2 (집중투표제의 배제) 당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 2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정관 조문형식 통일
제 41 조 (상당역 및 고문) 1.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당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1 조 (상당역 및 고문)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당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정관 조문형식 통일
제 41 조의 3 (감사의 임기) 1.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41 조의 3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정관 조문형식 통일
제 41 조의 4 (감사의 보선) 1.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의 4 (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관 조문형식 통일
제 41 조의 6 (감사의 감사록) 1.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1 조의 6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정관 조문형식 통일
제 42 조 (사업년도) 1.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42 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정관 조문형식 통일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1.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5) (현행과 동일)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5) (좌동)	정관 조문형식 통일
제 45 조 (이익배당) 1 ~ 2. (현행과 동일)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u>수종의 주식</u> 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u>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u>	제 45 조 (이익배당) 1 ~ 2. (좌동) 3. ----- 당 회사가 <u>종류주식</u> ----- ----- <u>각각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u> ----- <u>도 할 수 있다.</u>	제8조 개정 사항 반영
	부칙 제 3 조 (시행일) 이 정관은 <u>제70기</u>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u>2017년 3월 14일</u> )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오진수	'59.09.1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오진수	(現) 삼화페인트공업(주) 대표이사 부사장	츄고쿠삼화페인트(주) 감사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경영·기술혁신을 통한 실적개선으로 주주가치 제고 기대
- 임원의 책임경영과 성과주의 문화정착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허성	사장	사업총괄	기명식 보통주	120,000주
오진수	부사장	관리총괄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
류기봉	상무이사	공장장	기명식 보통주	60,000주
허귀행	상무이사	구매본부장	기명식 보통주	50,000주
장세곤	이사	EMC사업본부장	기명식 보통주	40,000주
유일선	이사	PCM사업본부장	기명식 보통주	40,000주
황재호	이사	지역사업본부장	기명식 보통주	40,000주
김종성	이사	공주생산본부장	기명식 보통주	20,000주
이동희	직원	연구소장	기명식 보통주	20,000주
총 9명	-	-	-	총 490,00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부여방법	행사시점에 다음 방법 중 이사회 결의로 결정함. (1) 신주교부, (2) 자기주식교부, (3) 행사가격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490,000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① 행사가격 : 2017년 3월 14일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 기준 실질가액으로 결정 ※ 실질가액 계산방법 : 기준일 2개월, 1개월, 1주간 가중산술평균 주식가격의 산술평균 (단, 10원 미만은 절사) ② 행사기간 : 2019년 3월 14일 ~ 2026년 3월 13일	-

기타 조건의 개요	<p>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무상감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보통주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및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부여 계약서에 의거하여 행사가격 및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p> <p>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 퇴직하는 경우, 근무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임, 해고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 계약서 및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p> <p>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p>	-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25,388,674	발행주식 총수의 15%	기명식보통주	3,808,301	3,808,301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	-	-	-	-	-	-	-
계	-	총( - )명	-	총( - )주	총( - )주	총( - )주	총( - )주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6명(2명)	6명(2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40억원	40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명	1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억원	2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